

疾病을 중심으로 한 醫學과 宗教



교수 김 영 제
가톨릭대학 대학원장

目 次

서 론
I. 종교의학 (Religious medicine)
가. 고대 애굽의 종교의학
나. 고대 희랍의 종교의학
다. 오리엔트와 유태의 종교의학
II. 종교와 합리적 경험적 의학
- 「히포크라테스」의학과
GALEN의학-
III. 종교와 치료 - 중세의학-
IV. 자연과학적 의학과 종교
결 론

서 론

이 기관에 몸담고 있는 의학도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 가톨릭 신자 동료들에게 필자는 가끔 농담조로 『여러분은 의학연구에 앞서 의학과 종교의 상관을 정립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들의 경우 개인뿐 아니라 학생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것은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자문자답의 내면적 요청이였었다.

그후 모 mission에서 여자대학에서 개최한 「패널토의」 『죽음과 종교』에 연자로 참석하여 종교인과 죽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시내대학들의 크리스찬학생회 초청으로 의학윤리의 특강을 한바있다. 작년에는 부산 모대학의 요청으로 『영과육』이란 제목속의 일부로 의학과 종교란 제목의 글을 썼다. 이러한 것들이 제기가 되어 『의학과 종교』의 문제를 내 나름으로 정리해볼까 하여 여기에 이 글을 쓴다.

위에서 이 문제는 이 기관의 일원이지만, 떠날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 단적인 표현이 우리대학에서 시작한 강좌 『의학과 윤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구 의학사가 말하듯이 인간문화의 시작에서 『의학과 종교』는 하나였다. 이것을 종교적 또는 마법적 의학 (Magic-Religious Medicine) 라고 한다. 그후 질병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합리적 사고의 발전은 고대 희랍에서는 「히포크라테스」의학을, 로마에서는 「갈렌」의학이 탄생시켜 의학은 종교

에서 독립되었다. 중세기 12세기 후 기독교 사회에서는 「갈렌」의 학이 받아 드려져 그 초기에는 사제들이 의료와 종교를 합쳤다.

후기에는 의료전문가가 배출하여 의료를 전담하였다. 문예부흥은 「갈렌」의 학의 발전과 시정에서 시작하였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자연과학적 의학을 탄생시켜 질병의 과학적 이해와 또 치료약의 인공적 합성으로 치료에서 과학적 이론이 실증되었다.

그러나 질병과 사망은 생명자체의 문제이고 또 의료란 문제는 그 사회성으로 사회적 경제적기 때문에 의학은 종교와 사회, 경제, 나아가서 모든 문화와는 떨어질 수 없는 관련위에 서있다. 의학사가 「지계리스트」는 『문명과 질병』이란 책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Kierkegaard들이 강조하듯이 인간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 이 불안은 그 심리에 있어서 바로 죽음과 질병고에 직결되며,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궁극적 초월자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다. 여기서 다시 죽음과 질병을 통해 의학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이제 필자는 이러한 의학과 종교의 상관을 주로 의학도의 입장에서 과거 역사 속의 질병을 매개로한 상관 즉 질병관과 의료에 있어서 의학과 종교를 논해볼까 한다. 동시에 역사속의 의학윤리도 언급할까 한다.

이것이 이 기관에 몸담은 동료와 학생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 종교의학(Religious medicine)

가. 고대 애굽의 종교의학

종교의 학은 고대 애굽, 슈메르와 고대 오

리엔트, 고대히랍 등에서 발달되었다. 이 존재는 파피루스 조각, 비문, 사원유적, 점토판과 부적등으로 증명된다. 이 중에서도 오리엔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나라에서 종교의학이 가장 발달되었던 것으로알려졌고 이것이 「앗시리아」와 바비론에 억류되어 노예 생활을 하였던 유태족의 질병관에 영향을 끼쳐 구약성서에 나오는 나병의 경우 신의 저주를 받은 질병 소위 천형병(天刑病)이란 관념의 근원이 고대 「오리엔트」 종교의 학으로 생각되고 있다. 참고삼아 소개하면 최근 구약성서의 『우주창조』 『노아의 홍수』 등의 신화는 그 원형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임이 출토된 점토판으로 알려졌다.

고대 애굽의 의학문서인 「파피루스중에 Ebers Papyrus의 서두를 장식하는 의식」제사중의 하나인 신에 대한 기원주문은 아래와 같다. 『마술에 능한 아이시스(Isis 치료신)이여! 나를 모든 나쁜것과 악마와 사악한 것 또 남신과 여신, 죽은 남녀, 또 나를 해하려는 적의 남녀에게서 구해 주소서 마치 당신의 아들 「호로스」를 구하듯이...』

이 Ebers Papyrus는 아는바와 같이 독일 Georg Ebers 교수가 1872년 애굽 테베에서 발굴한 것으로 서기전 약 1천5백년경의 의서로 생각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내과적 질환을 취급하고 있고 또 많은 약품소개등을 하고 있어 상당히 발달한 합리적인 의학교과서로 알려지고 있다. 그속에는 또 안질인 트라코마, 관절염, 심이지장충, 촌충, 회충등 기생충질환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의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두에는 전술한 제사의식과 주문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의학사가 「지계리스트」는 병치료는 종교의식의 일부이고 그 의식 중에는 주문 기원으로 시작하는 구두(口頭)의식과 손으로 환자를 만지는 손의식이 있으며 투약은 그 후에 이루어 졌다고 한다. 병진단은 이 병

이 어느 치료신에게 주문을 올려야 할지를 결정짓기 위해서, 또 투약등 치료로 나올수 없는 병인 경우, 즉 불치의 병은 주로 제사에 돌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들의 치료신은 새모양의 Thoth신, Horus를 안고 있는 Isis 여신, 또 유명한 소인모양의 Imhotep 등 여러 신이 있었다. 여기서 잠깐 필자의 여담을 소개함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것은 필자가 Ebers Papyrus를 직접 볼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파피루스」는 독일「라이프찌히」대학에 보관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1955년에 필자가 뉴욕에서 뉴욕의학「아카데미」도서관에 도서열람을 자주가던중 필자가 특히 의학교서를 열람하는 것을 알게된 2층교서 여자직원이 친절하게도 귀중하게 보관된 이 「파피루스」를 금고같이된 별실로 안내하여 보여 주었다. 상상과는 달리 이 「파피루스」는 마치 우리나라의 아주 잘된 은돌장판의 선명한 황색이었다. 즉 기름먹인 이 파피루스의 지면은 황으로 묶여진 갈대를 하나 하나 구별할 수 있었고 그 위에 쓰여진 붉은색과 검은색의 상형문자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이것이 수천년전 문서라고는 도저히 믿을수 없었다.

당시 애굽 사회는 신들과 죽은사람들 및 살아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신들과 죽은 사람은 항상 어느 순간이나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사는 곳에 집, 사원 무덤을 필요로 하여 나라안에서 가장 좋은 처소를 소유하였다. 즉, 죽은 왕의 처소는 유명한 나일강변의「파라밋」이다. 또 그들은 음식을 필요로 하여 사람들은 이것을 제물의 형식으로 바쳤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항상 기도의식을 통해 자신이 주목받기 원했다. 따라서 사원의 현판에는 항상 점등이 계속되었다. 이 사원들은 나일

강가나 길가에 있어야만 여행자는 그들앞에서서 기도하고 여행길을 떠날 수 있었다. 즉, 신들은 마음대로 병을 주고 또 고칠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특히 매장되지 않은 데서 나와 이곳 저곳 방황하는 악령은 어느 곳이던 있어 사람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 병을 준다고 생각했다. 전술한 「지계리스트」는 현재 의학에서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있는 병원균을 생각할 때 당시의 이 악령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 고대희랍의 종교의학

희랍의 종교의학은 애굽과는 다르다. 고대 희랍은 애굽의 「파피루스」같은 의학 기록은 없고 또 치료신도 애굽같이 다양하지 않다. 고대 희랍의 의학기록은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속에 관제기록및 Pausanias의 여행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아는바와 같이 「일리아드」는 영웅「아킬레스」와 「트로이」전쟁에 관한 서사시이고 「오디세이」는 주인공 「오디세이」의 모험을 그린 소설적 서사시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전쟁의 혈투장면과 이에 따른 의학적 기록 및 치료 이야기가 나온다.

이속에 등장하는 영웅이 대부분 「아킬레스」를 위시하여 자신의 자기상처의 치료를 또는 다른 영웅이나 전우의 치료를 받는다. 즉 대부분 영웅이 일종의 치료능력을 가진 신들이다. 또 「오디세이」에는 마법적 치료의식도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희랍의 종교의학은 결국 신 숭배로 발전되었고 또 이것이 그후 희랍및 로마지배하 전영역에까지 확대되어 결국 기독교가 4세기후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민중의 종교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원래 희랍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신도 치료신이고 또한「아폴로」도 치료신이였다. 히포크라테스 서약의 서두에는 최초의 치료신이「아폴로」신으로 등장한다. 「델피」신전의「아폴로」신탁치료가 유명했고 또 서기전 300년경 주화에는「아폴로」가 성스러운 나무 월계수에 기대고 그가 지닌 활은 민중을 향해 흑사병을 유행하게 도안이 새겨져 있다.

또 트로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토된 주화에서 활과 흑사병 쥐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아폴로」가 흑사병도 고친다는 의미이다. 즉「아폴로」가 사람의 흑사병 치료뿐만 아니라 병도 준다는 생각이다. 현대의학에서도 의학상징의 문장은 월계수와 두마리의 뱀으로 되어 있다. 이 뱀은 희랍 종교의학의 치료신인 지하신(地下神)의 사자(使者)이다. 따라서 고대희랍 치료신중 지하신을 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레모노스섬에서는 불의 신「헤파이토스」가 치료신이다. 이것은「제우스」신이 하늘에서 그를 던졌을 때 그가 낙하된 땅이 치료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레모노의 흙이 상처, 궤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지금도 terra Sigillata라고 하여 약품으로 팔리고 있다.

「제우스」의 일가족은 다 치료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다. 즉 그의 부인인「헤라」는 산파신이고 그의 딸「아테나」는 아테네에서 치료신으로, 특히 아테네「아크로 폴리스」에는 Hygienia란 이름으로 숭상 받는다. 스파르타에서는「아테나」가 안과신(眼科神)으로 되었다.

그밖에 민족신으로 Melampus가 있다. 의학을 표시하는 뱀의 전설에는 Melampus가 키운 두마리의 뱀이 그의 눈을 깨끗하게 한 후부터 새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그는 Tiryns의 왕 Proetus의 딸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치료는 고향, 흥분과 춤 등으로 소위 정신적 정화치료(카타르시스)법을 썼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는 쓴맛의 실사약 Malam Podium을 정화치료에 썼다. 희랍 Attica의 Aegasthena에는 그의 성소가 있고 현재도 매년 제사를 지낸다. 그의 후손들은 의사가 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Amphiaraus이다. 그는 지하신이며 그가 왜 지하에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전설이 있다. 「테베」와 전쟁 때에 Amphiaraus는 활에 맞았고 그순간「제우스」신이 땅을 열어 그를 그의 전차와 말과함께 삼켜 구했으며 Amphiaraus는 불사신(不死身)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있는 곳에, 즉 땅에 누워자면 그의 신탁을 통해 병이 낫는다.

그 방법을 행하는 환자들은 3일간 포도주를 금하고 하루 절식한 다음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양가죽 위에서 현몽을 기다려 신탁을 구했다고 한다.

다음 Amphiaraus 외에 또 하나 지하신이 있었다. Trophonius는 한때 건축가였으나 적에게 쫓겨 도망해 Lebadera 근처 땅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깊은 땅속에 살면서 환자에게는 뱀을 통해 신탁을 주었다.

Amphiaraus의 치료와 다른점은 동굴속에 들어갔다는 점이 다르다.

땅과 치료와의 관계는 Asclepius란 말 자체가 원래 Skalops, aspalox, 또 Spalax에서 유래된 것이고, 이 Spalax는 두더지란 말도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Asclepius가「제우스」신의 노여움으로 눈이 안보이는 두더지가 되었다는데서 이름만 것으로 이동물은 마법의 동물이란것 등의 전설이 있다. 실존한 명의였던 것이, 전설화되어 치료신「아폴로」의 아들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한다.

그밖에 땅과 의학종교의 신으로는 약초를

발견한 Centaur chiron 신이 있다. 이 신은 반은 말이고 반은 신으로 식물의 치료적 성격을 발견했다고 한다. 따라서 약의 이름에 Panacea centadtrion 또 panacea chionium 등 그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이같이 회랍의 종교의학은 그 치료에서 Amphiarus의 Incubation과 Melampus의 흥분, 또 Chiron의 약초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 이 Incubation은 특히 땅에 서식하는 뱀과 관련이 된 신탁 즉 Oracle medicine의 방법이며 회랍의 약초도 지하신(C hthóniau Doman)의 성격이다. 그러나「제우스」나「아폴로」는 병을 줄 수 있고 또 퇴치시킬 수 있는 신이었으나 그밖의 여러신인 반신 반인의 치료인들은 그후 점점 Asclepius의 치료신 신앙으로 집약되고 말았고 이 신의 제사는 Epidarius에 있는 그의 신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곳이 본산이었다. 이 신전은 서기 2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Pausanias의 기록과 현재 Epidarius에서 발굴된 페허로써 충분히 그 규모와 내용을 알수있게 되었다. 이제 그 사원과 의식을 소개하면 Incubation(자리에 눕는것)으로 지하신의 신탁을 얻는 것은 다분히 심리적 치료이다.

심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성역은 세속을 떠난 숲속의 성역이라야 하고 그 Asclepius 신은 그 존귀와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원은 상아와 황금으로 지어졌고 그 신의 머리에는 왕관을, 한쪽 손은 지신이고 그사자인 뱀이 머리위에 놓여있고 또 다른 한손은 위엄을 갖추기 위한 지팡이가 주어졌으며 또 그의 사자가 옆에 따른다. 이것은 Epidarius 주화나 환자들이 바친 동물의 기념품에 나오는 모습이다. 이신의 조상을 황금지붕의 사원에서 내려서면 그곳에 두더지 땅굴의 상징인 원형의 대리석 건물 Rotanda가 있다. 이 건물의 우아한 기둥과 벽은 유명한 Pausias의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그 그림 속에서 술의신 Baccus(Dionysia)는 광란(狂亂)을 상징하고 Mertha 여신은 유리컵으로 술을 마시고 Eros 신은 그의 활과 화살을 버리고 약기인 금을 잡고 음악을 연주한다. 이 Ratunda 가깝게 incubation hall 즉 침방이 있다. 이것은 Abaton이라고 한다. 그밖에 Atreiuus, Aphrodite, Therus의 신전들이 있고 이런 건물에는 Asclepius와 그의 처 Hygia, 딸 Aceso, Iaso, Panacea와 Tespharus 등 그의 가족과 조상의 나열이 계속된다.

최후의 소년(少年)신 Telesphorus는 질병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 사원의 입구에는『향기로운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선 청결해야한다.』는 말이 붙어 있었다. 청결은 경건을 의미하고, 환자는 목욕하고 흰 내의로 갈아입고난 다음 신에게 예물을 바쳤다. 예물을 바친 후에 성역에서 우선 많은 성스러운것, 또 치료된 환자들의 그림, 조상, 부조, 대리석 비명위에 쓰여진 치료송(頌)등을 읽게된다. 이러한 세뇌 후에 환자는 Abaton에 들어가 밤중에 긴의자에 눕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제우스신 같은 긴 수염의 신(Asclepius)이 혼자 또는 Hygieia와 그의 다른 자녀와 함께 또는 뱀과 개들이 나타난다. 환부를 Asclepius 신이 만지거나 수술을 한다. 개는 상처를 핥는다. 아침 밝은해가 언덕위에 솟으면 맹인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새소리를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오래된 통증이 없어진다. 물론 불신하거나 정성이 부족한 환자에게는 치료가 안일어난다. 이러한 꿈속의 신의 출현은 아무도 관여 못하는 신비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실제 일어날수 있다.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심리적 치료라고 부른다.

이상의 애급 및 회랍의 Asclepius의 제사는 종교의학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의학과 종교가 하나이다. 전자에는 치료에서 종교

와 의학이 함께 하되 그 절차가 다를 뿐이며 후자에서는 종교의식 자체가 치료이다. 그 차이는 애굽의 학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의식이요, 히랍은 그 자체가 심리적 치료를 의미한다.

다. 오리엔트와 유태의 종교의학

그러나 유태교 내지 기독교의 경우는 다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는 신이 욥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위해 병을 주었고 끝에 가서는 병을 고쳐준다. 물론 병을 주는 것은 신 자신이 아니고 마귀를 중간에 둔다. 이 유태인의 질병관은 두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현재 서구문화에 히랍문화와 함께 가장 깊은 영향을 주어 결국 현대 서양의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그들이 일찍 오랫동안 앗시리아와 바빌론의 포로생활을 통해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그 실례는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노아의 방주』 등의 전설의 원형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에서 발굴된 점토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생각 역시 다분히 이곳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가장 다른 것은 이 지방은 다신교에 비해 유태인은 유일신이었다는 것이 다르다. 즉 슈메르의 우주신인 하늘, 땅, 물 등의 신이 앗시리아, 바빌론에서는 이름만 바꾸어 계승된다. 그밖에 지방신이 여기에 합쳐졌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는 다신교적인 성격이 애굽보다도 더 강하여 질병마다 주관하는 신이 다를 정도로 많은 신과 악령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록은 애굽과는 달리 의서는 없고 점토판 속의 일반문서와 함께 발견된다. 애굽과 다른 점은 슈메르는 많은 신과 악령이 주거 어느곳에서나, 주방과 어두운 구석

폐허된 집, 광야 어디든지 우글거리고 밤에는 마을거리를 소리치며 다니고 또 바위위에 숨거나 산림 속에 있어, 안전한 곳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착한 생활을 하고 신을 숭상하고 규칙적 제물을 바쳐 그들의 조상들을 모시며 또 터부를 지키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악령을 무서워 할 것 없다.

슈메르의 주문은 예방적인 것이었다. 즉 악령을 멀리하는 것이었다. 이 예방은 질병의 경우 전염관념이다. 구약성서에서 병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즉 환자와의 접촉, 환자의 기물과 접촉이 금지되었다. 이것이 나병에 대한 구약성서 레위기기의 교훈이다. 즉 환자와 그 기물을 통해 질병 즉 악령이 침입한다

따라서 전염된 사람의 속죄의식(atonement ritual)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전염개념이 현대의학의 전염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악령의 종류는 대단히 많으나 Thompsen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① 죽은자의 유형으로 매장 안된 시체의 유형이 자기몸을 찾으려고 방황한다. ② 악령과 사람사이에서 태어난 즉 혼혈의 악령이다. ③ 귀신 또는 악마로 신과 같은 성격이다. 주로 나쁜 일을 일삼는 악마들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죄의 결과든지 또는 악령의 침입이든지 여하튼 발병하면 사회에서는 쫓겨난다. 그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면 초자연적인 세계 즉 신과 화해해야 한다. 화해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즉 진단이 필요하다.

그 환자가 범한 죄 또는 침입한 악마의 종류와 그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즉 병이 치유될 것인지 불치로 끝날 것인지, 단기인지 장기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문제이다.

이 점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새, 쥐, 꿈 등 그러나 「바빌론」에서는 간점(hepatoscopy)이 고도로 발달했다. 이것은 「오리

엔트」는 물론「로마」에 까지 파급되었었다. 간접의 이유는 간이 동물의 정신과 생명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제사로 양을 바치고 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신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영국 박물관에 보관된 이 간접의 모형은 함무라비 시대의 것으로 점술가를 위한 교육용 교재였다고 한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방 역시 애급과 같이 종교의식이 질병치료 진단의 중요부분이었으나 부적 등은 예방적인 의미가 있어 이것이 유태교에서는 많은 특이한 예방적인 의학, 할례, 또 부패된 음식의 기피 특히 피를 뺀 동물을 먹는다는 가 하는 위생학적인 것으로 발전되었다. 기독교의 종교의학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종교의식이 치료의식이 아니고 예수의 경우는 불쌍한자와 환자를 돕는 것이 나아가서 신앙을 통해서만이 병도 치료된다는 신의 권위의 증거로 나타난다.

그 자신이 신이었기에 병을 고쳤고 제자에게도 병을 고치는 영적 힘을 주었다. 즉 치료는 영의 힘으로 악령을 내쫓는 것이었고 나병은 물론 죽은「나자로」까지도 소생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애급과 히랍 및 오리엔트의 종교의학, 즉 종교의식 자체가 치료인 종교의학을 보았다.

II. 종교와 합리적 경험적 의학

「히포크라테스」의학과 GALEN 의학

「히포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전 히랍 철학의 합리적 자연관에 따르는 자연의학을 정립한다.

병의 원인은 신이나 영이 아닌 자연인 바람(Wind) 즉 대기가 체내에 들어와 통증

과 열을 일으키되, 몸은 자연물질인 4가지 액체 즉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되고 이 액체는 자연성질인 습, 냉, 열, 건등의 성질을 가져 이것이 4계절에 따라 증가하면 여기에 따라 계절적 질환이 생기며, 체내의 Innate Heat가 액체이상으로 생긴 나쁜 액체를 변화시킨다. 즉 자비(煮沸 Coction)을 일으켜 고름이 되고 고름이 배설되면 병이 낫는다. 당시 의사는 현재와 같이 국가의 면허장이 없으므로 의사 자신들이 자신을 공인 또는 주장(Profess)해야 했다. 이것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기에 환자를 보면 그자리에서 그 병의 과거증세, 앞으로 어찌될 것을 예언하거나, 또는 무당같이 과거병증을 맞추어 내야 환자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기에 당시 진단은 예후적 진단(prognostic diagnosis)였고 또 한편 정확히 회복할 것인지 사망할 것인지를 즉 예후를 말해야 했다.

살아날 때는 언제 회복하느냐 즉 분리 crisis가 언제 오느냐, 또 재발하느냐 안하느냐?

당시 이 치료에는 상류시민에만 시행되었고 노예는 치료대상이 아니었다. 즉 「히포크라테스」의학은 합리적, 유물론적 의학과 시민이상의 민주사회 주민의 치료였다.

노예와 천민은 주로 무술적 종교적 의학에 따를수 밖에 없었다. 「갈렌」은 「히포크라테스」의 액체의학설을 받아들였으나 이 때 이 때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발달한 해부학적 토대가 있었다. 「갈렌」은 그위에 자신이 해부학과 특히 실험생리학(신경계, 비뇨기계)을 발전시켜 의학을 체계화 하였다.

그는 병리학 교과서를 썼고, 주로 정후로써 질병부위를 진단하여 sympathy란 독특한 질병의 출현기전을 주장하였고 또 액체학설에 pneuma 학설을 합쳤다.

이 pneuma는 섭취된 음식이 간장에서 혈액에 성장, 영양등 능력을 가진 vegetation pneuma가 되고, 혈액의 일부는 폐에서,공기와 합쳐, vital pneuma가 되고 또 이 혈액이 뇌에가면 animal pneuma가 되어 신경계를 통해 운동 등 동물의 정신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추신경계와 척추신경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척추손상때 일어나는 상, 하지 운동마비와 신경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때 손상부위는 척추이나 마비는 떨어진 곳에 출현함을 곧 sympathy라고 하고 마비된 근육에는 마비란 기능적 변화는 왔으나 발병근원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또 질환은 조직, 기관, 전신으로 일어나고 대부분 metabolic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metabolic chnge의 근원을 presentation과 adhesion으로 설명했다.

이 presentation과 adhesion은 영향에도 통용되나, 4액체 혼합이상 즉 dyscrasia의 질병에도 해당되고 현재의학의 cell receptor에 가까운 idea가 이때 나오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은 물질론적인 의학이고 그 병요인은 소우주인 인체의 자연조화 이상이다.

「갈렌」의학은 중세기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때 이론은 신명설(神命說)이다. 신의 명령에 의해 창조된 우주는 특별한 초자연적 신의 힘의 참가없는 경우는 자연법칙이 그대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갈렌」의 자연적 의학은 곧 이 신명설에 뒷받침 받았다. 「히포라테스」와 「갈렌」의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의 자연원리에 봉사하는것이 의학도의 사명이요 이상이었다. 따라서 자연순리에 따르지 않는 치료도 하지 않았다.

한편 17,18세기에 시작한 기계론적 생물학적 의학이 종교와는 서로 배타적인 평행선

을 그려갔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세포 병리학의 제창자로 근대병리학회의 건설자라고 할수 있는 「비르호」는 종교와의 타협을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은 유명한 사실이고, 그의 스승「볼러」및 선배「헬몰츠」를 이은 기계론적 의학의 확립은 현대의학의 기초를 닦는데서 당시 독일을 풍미했던 「세링」등의 자연주의 철학에 영향받은 의학의 오류를 배격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귀결이었고,특히 그 「비르호」를 이어받은 기계론적 의학에 있어서도 종교와의 비타협은 줄곧 종교와 평행선을 그려왔다. 이것이 19,20세기 의학과 종교와의 관계라고 할수있다. 특히 유물론적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의한 심리분석은 모든 종교적인 것을 정신기능으로 환원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비르호」, 「헬몰츠」등의 의학이 질병이해의 학설이지 치료의학은 아니었다.)

Ⅲ. 종교와 치료

-중세의학-

중세 기독교의학은 회람의학과는 달리, 인간이 자연소산이 아니고 신이 창조한 인간으로, 신의 자연으로써, 평등하고, 또 예수가 가르킨 마음속에서 나오는 「아가페」적 사랑이 환자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당시 의학은 주로 성직자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기술은 고대 회람의학보다 떨어지는 전기술적 단계이고 자선적 성격과 신의 가호인 초자연적 성격이었다. 12세기후에 「갈렌」의학이 「아랍」쪽서 서구로 다시 들어온 후에는 「갈렌」의학이 지배적이었다.

이때 종교적 성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기독교가 4세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후 당시 사회의 하

층계급인 노예와 빈곤자의 질병의 구세주였던 「아스클레피우스」 신앙을 철저히 파멸시켜야 했다.

따라서 성서 4 복음서는 예수의 병치료 이 야기가 주된 줄거리 중의 하나였고, 또 철저히 Asclepius 성전은 기독교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후 기독교는 경험적, 합리적인 당시 회 랫 로마의 학인 「갈렌」의 학을 받아들였으 나 신비적 치료는 더욱 우상화 되었다. 즉, 기독교에서도 병에 따른 치료성인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흑사병에 St. Sebastion, 나 병에 St. Lazarous 등 또 성모마리아가 치료의 승배로 전환되었다. 불란서에는 현재 도 40 개 이상의 「노틀담」 성당이 환자, 허 약자, 빈민구제, 치료, 회복, 건강 등등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또 유명한 Lourde 의 동 굴 및 「노틀담」에는 현재도 기적적 치료를 바라는 사람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많은 고덕의 위엄에 찬 건물, 황금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성당 내부등 그밖의 성유물들도 승 상의 대상이다.

이것은 마치 애급과 회랫의 신전의 우상 화에 가까운 남용이다.

그후 개신교는 모든 우상을 배척하고 복 음으로 돌아가기를 주장, 치료는 기도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즉, 신앙에 의한 치료이다.

근세기에 와서 미국에서 기독교가 종교적 치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직화하여 신앙에 의한 의학치료 기구가 탄생되었다. 그 예 는 유명한 Mary Baker Eddy(1821-1910) 여사의 Christian science 운동이다. 이 것은 「보스톤」에서 시작되어 현재 미국내 1,000 개 이상의 교회와 100 만 신도가 있다.

이것은 시계공인 Quinsby 에 뒤따른 운 동으로 그 교리는 병뿐 아니라 모든 재화도 고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재화(evil)라

는 것은 없고 물질도 존재 안하며 있는것은 다만 정신(spirit) 뿐이다. 정신은 신(God)이다. 신은 선량하고 어더든지 존재한다. 병, 죄, 죽음은 존재 안한다. 이것들 모두가 인간의 과오 때문이다. 사람이 아플때 이것은 과오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생각으로 되돌아오면 그는 반드시 좋게 느낄 것이다.(well) 이것은 미국의 당시 의학이 지나치게 기계론적이었는데 대해 반발로 일어난 것으로 이 종교의학은 심리적인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여하튼 신판(新版)의 종교의학이다.

그후 Elwood Vacester 목사의 운동은 좀 달랐다. 그는 1905 년 「보스톤」에서 Pratt 박사와 협력하여 결핵요양소에 갈수 없 는 빈곤자를 위해 결핵학급을 만들어서 당시의 의학적 치료법과 훈련, 우정, 격려와 희망등 정신적 치료법을 실시하고 또 신경과 정신병자를 위한 「엠마누엘」 건강교실, 「엘 스 클라스」도 설립하였다.

이것은 종교의학이 아니고 종교와 의학의 협력이다.

즉 심리학 요법이 종교적 요소의 암시를 통해 실시된 것이다. 이같이 종교와 의학은 최근에 와서도 종교의학으로 또는 치료에 있어서 의학의 협조자로서 서로 공헌할 수 있는 실패를 우리는 보고있다. 그러나 그 치료가 심리적이란 면에 주로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V. 자연과학적 의학과 종교

16,17,18 세기에 부흥하는 물리화학적, 과학적 발전과 생물학적 발전으로 Morgani 가 병은 액체 혼합 보다 장기에 국재 하는 형태적 변화로 일어난다고 주장한 병의 국

개설이 Virchow에 의해 병은 세포의 이상 반응이라고 이해되어 현대 병리학의 기초가 이루어졌고 이 세포의 이상반응이란 점에서 치료약의 작용적인 세포가 분명하게 되어 근대 이론적 치료가 가능해졌다.

즉 「히포크라테스」의 Innate Heat 는 현재 백혈구의 균의 탐식, 소화, 박멸 능력 또 액체성 및 세포성 면역체의 확립으로 치료의 근원요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병의 원인도 신이 주는 벌이 아니고 세균같은 객관적인 것이 증명되어 병의 원인과 치료기, 병의 과정까지도 과학적으로 이해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몇가지 다른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하나는 이러한 생물학적 의학에 대해 질병의 사회적 현상이다. 유행병이 특히 그러하다.

이병의 극복은 개개인의 치료보다도 사회적, 예방적 조치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란 조직때문에 사람들이 군집하여 사는 결과이고 또 이러한 사회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생산활동 즉 공장등이 세워진다. 이것 또한 질병의 원인으로 등장한다.

즉 병은 생물학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세균감염 뿐 아니라 인공적인 사회적 환경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공업화에 따른 공해는 현재 발전된 공업국가의 중대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생물학적 의학의 방법 뿐 아니라 사회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의학을 낳게 했다. 즉 질병은 기계론적인 생물과학적인 방법 내지 생각 이외에 사회적인 방법 또는 생각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발전은 단순한 기계론적 질병관에서 더 넓은 질병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사회집단을 상대로 할때 특히 종교집단에 대한 문제로서 새로 종교와 의학이 관련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집단이 건립한 의학교, 병원등에서 특히 여러가지 종교와 의학의 상관관계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 이미 Portmann이 살아 있는 것의 문제『Das problem des Lebendigen』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의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은 원래 한몸에 함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순간기능과형태로 나눌수 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분석으로 인한 불가피한 손실을 입는다. 이것이 정신기능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받아 들일 때 우리는 특히 정신신경질환의 경우 과연 우리가 취하는 생물학적 치료방법, 심리학적 이해 방법으로서의 정신분석적 치료방법과 종교적인 방법의 병치료에 있어서의 우열 또는 각기의 장점등이 고려될 수 있다.

끝으로 현대과학적 의학에 있어서 불치의 병이 있는 이상 이러한 환자의 정신적 문제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히 암의 경우 의사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는 다분히 과학적이 아니고 경험적, 실용주의적, 윤리적이 될수 있는 것이다.

결 론

필자는 종교를 잘 모르면서, 종교와 의학을 논했다. 이 글의 중심 흐름은 병치료를 쫓점으로 종교와 의학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에 역사적 관점이 많이 언급되었다. 한편 필자가 고대희랍 종교의학의 상세히 소개한 것은 그 Incubation 치료와 비슷한 사항이 현재 또는 과거 우리나라의 종교적, 주술적 치료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종교와 의학은, 고대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등에서는 통합되어 있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종교의학이라 부른다. 고대 회랍과 로마 시대에는 히포크라테스와 가렌 등의 경험적 합리적 의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초자연적인 종교적 의학과는 이별하였다. 중세기 초에는 게루만 민족의 로마 침입으로 고대 회랍의학은 계승 발전못하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후 사제들이 초보적 의료를 하여, 주로 초자연적 신앙에 의한 치료와 사랑 즉 자선과 초보적 의학이 교단에 의해 시행되었다. 11세기경부터 회교국에서, 고대 회랍의 합리적 경험적 의학의 기초 위에서 발전된 그들 의학이 역으로 서구에 수입되어 가렌의학이 재인식되고, 그 고전이 번역되어 사제가 아닌 의료전문의사가 배출되게 되었다.

16세기후 자연과학 발전과 함께 19세기에는 자연과학적 의학이 완전히 정립되고 질병의 기계론적 유물론적 인 사조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 의학의 실증성으로 인하여 기계론적 이론이 치료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지나친 기계론적인 사조에 대한 반발이, 미국에서는 일부 종교와 의학의 결합운동으로 나타났고, 또 중세기에 불란서에서는 많은 질병별 효염있는 노틀담이 출현하였고 또 현재도 루우루드의 기적이 보도되고 있다. 이같이 종교와 의학은 질병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속에서 이난성 쌍둥이로 시작하여 떨어졌다. 합쳤다가 되풀이 하고있다. 그 이유는 질병은 곧 생명의 다른면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실존주의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본래적인 자각이고, 또 조직신학에서 말하듯이 종교가 인간의 초월성으로 향한 희망이라면 질병은 이러한 본래적 인간자각의 계기이고, 따라서 종교는 질병이 인간에 대한 의미를, 과학적 의학은 질병의 물질적, 정신적해

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질병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의학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에 함께 접근하는 것이다.

病院倫理綱領

우리 病院人은 人間生命의 尊嚴性을 認識하고 博愛와 奉仕精神으로 우리의 綱領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1. 病院은, 醫療가 第一의 義務임을 認識하고 모든 患者에게 最善의 診療를 提供한다.
2. 病院은, 恒時 救急診療態勢를 完備하고 사랑과 精誠으로 患者를 保護한다.
3. 病院은, 職員의 人和와 協同의 努力으로 親切하고 倫理的인 診療 雰囲気를 造成한다.
4. 病院은, 不斷한 研究와 教育訓練으로 醫療發展에 寄與하고 患者의 信賴를 높인다.
5. 病院은, 診療環境을 淨潔히 維持하고 感染 및 火災豫防等 安全管理에 注意義務를 다한다.
6. 病院은, 關係法規를 遵守하고 모든 去來行爲를 公正無私하게 處理한다.
7. 病院은, 患者診療의 秘密을 지키고 患者의 信仰의 慣習을 尊重한다.
8. 病院은, 有關機關 및 團體와 相互協力하고 地域社會住民의 保健增進에 努力한다.
9. 病院은, 道義의이며 適正한 弘報活動을 하고 他病院을 誹謗하거나 患者誘引行爲를 하지 않는다.
10. 病院은, 患者管理, 施設裝備 및 診療活動面에서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標準을 維持 向上시킨다.